

정후식 칼럼



정후식  
논설실장·이사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다섯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후보 선출을 위한 여야 정당의 경선 열기는 뜨겁기만 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경선도 어느덧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경기 지사는 그동안 지역 순회 경선과 1·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확보했다. 대세론을 이어가며 본선 직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여덟 명의 주자를 네 명으로 압축하는 2차 예비 경선을 치른다. 이어 지역별 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하지만 대선 판세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여야 유력 주자들이 엮차락뒤치락,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다. 하지만 자고 나면 후보들을 둘러싼 메가톤급 의혹들이 잇따라 터져 나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추진된 대장동 개발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의혹은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대선판을 뒤엎고 있다. 여야 모두가 의혹의 대상이 되면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계 제로의 국면이다. 사안의 폭발력이 워낙 커 그 어느 쪽이든 불똥이 나 비리가 확인되면 치명상을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 때문에 여야는 상대를 향해 '국민의힘 게이트'니 혹은 '이재명 게이트'니 하며 프레임을 씌우는 전략으로 사활을 건 공방을 펼치고 있다. 결국 진실은 수사를

은펜칼럼



송민식  
수필가·전 여천고 교장

칭기즈칸은 이런 말을 했다. "길이 없으면 새 길을 만들라"고. 굳이 이 말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성을 쌓는 자는 길을 내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역사를 살펴보면 성을 쌓는 자는 결국 망하고 말았다.

사람은 성을 쌓고 싶은 욕망이 있다. 성안에 머무르는 자들은 성 밖의 사람들과 구별되고 싶어 하고 성 밖의 "다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어 한다. 주변을 살펴보면 '과거의 벽돌'로 단단하게 문채진 학벌이라는 성이 있다. 10대 후반에 치렀던 시험 결과로 평생을 규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착화한 비합리적인 사회의 모습인가.

사회는 구석구석까지 패거리 문화를 조장하고 있는 학연은 곧 학맥을 형성한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큰 벼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출신 학교가 어디인가부터 따진다. 그리하여 학교가 같으면 과거에는 서로 잘 알지 못했던 사이라도 금방 선배-후배, 형님-동생으로

기고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지난 주말에 집 근처 뒷밭에서 고구마를 캐다. 올해 초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주말 농장에서의 가을 첫 수확이었다. 한여름 뜨거운 폭염에도 쪽쪽 땀이 나간 고구마 줄기는 본의 아니게 옆의 밭에 피해를 줬었다. 고구마순만 너무 무성해 수확은 별 기대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땅속 깊숙이 굳게 박혀 어른 팔뚝 만한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게 아닌가. 그야말로 캐도 캐도 끝없이 나오는 고구마 덩굴이었다. 다섯 켤 남짓한 밭을 캐는데 두어 시간이 훌쩍 걸렸으

의혹만 난무하는 '개와 늑대의 시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때까지는 여야 모두에게 '개와 늑대의 시간' (L'heure entre chien et loup)이 될 전망이다. 흔히 프랑스 사람들은 빛과 어둠이 뒤섞인 황혼녘, 모호한 경계의 시간을 그렇게 표현한다. 양치기들의 눈에는 저 어스름 속에서 실루엣으로 다가오는 짐승이 나를 반기는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에게는 이 혼돈의 시간이 더욱 혼란스럽다. 해 질 녘은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때이지만 온통 붉을 뿐이어서 선과 악 혹은 적과 아군의 구분이 어렵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허상인지 눈을 의심해야 하는 시간이다. 선거를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규정할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로마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선거로 선택받은 민의 대변자들이 '저마다 충견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훗날 탐욕스러운 늑대였던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개와 늑대의 정치학', 함규진 서울교육대 교수)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처한 상황도 녹록치 않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늘어만 가고, 총체적인 민생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부동산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소득·자산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확대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 등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기득권 엘리트들이 공고한 카르텔을 형성, 부동산 등으로 이권 쟁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대장동 개발만 해도 언론인·변호사·회계사 등 화천대유(시행사)의 소수 주주들이 배당금으로만 4000억 원을 챙겼다. 대법관·특별검사·검찰총장·검사장 출신 인사들은 고문단에 이름을 올린 뒤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 국민의힘을 탈당할 광산도 의원인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년간방 근무한 뒤 받은 퇴직금도 무려 50억 원이나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도 잊고져 일어난 일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10·30대의 사망 원인을 보면 자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출산율은 세계에서 맨 꼴찌를 기록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

한 희망조차 잃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표들이다. 탈출구를 잃은 청년들은 대충까지 받아 부동산, 가상화폐, 주식 등 위험자산에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의 준말) 투자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삶의 막다른 골목에 이른 사람들이 거액의 상금을 위해 목숨을 건 생존 게임을 벌이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젊은 층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대선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득권층의 특혜를 혁파해 공정과 공존을 모색하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를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방 분권·균형 발전 이끌 수 있어야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과제는 국토 균형 발전의 회복이다. 수도권 집중을 넘어 '일극(一極) 포화'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은 단지 지방의 시각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분명 비정상 국가이다. 국토 면적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인구의 과반이 몰려 있고 일자리·교육 기반마저 온통 그곳에 쏠려 있는 현실에서 지방은 날로 피해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인 것이다. 집값 폭등이나 청년 실업, 의료 격차, 저출산, 삶의 질 저하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도 모두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광주일보가 최근 '2022년 대선의 해, 신(新) 균형 발전 원년으로'란 심층 보도를 기획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문제는 그런데도 대권 후보들이 균형 발전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 불균형이 더 심화되면 국가의 지속 가능성도 담담할 수 없다는 점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일까. 때마침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촛불 항쟁 5주년을 맞았다. 이번 대선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의 대전환기를 헤쳐 나갈 미래 비전과 지방 분권 및 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유권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더 이상의 국정 농단을 막기 위해 깨어 있는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할 것이다.

승자독식의 '시험 공화국'

이러저 사적인 연결망이 형성된다. 소위 줄 대기의 시작이다.

이런 것을 보면서 스포츠 경기에서 패자부활전을 생각하게 된다. 주로 단판 승부 형식의 토너먼트 대회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패자부활전이다. 진정한 성공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참가자들이 한 번의 성공이나 실패에 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패자부활전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철저한 '실력 중심'의 평가 시스템이다. 여기서 나이, 성별, 소속 단체, 출신 학교 등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경기장 안에서 실력으로만 대결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선진국보다 패자에 대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하다. 공정 사회가 되려면 역경을 딛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패자부활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에게 패자부활전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기회가 대학 졸업 후 취업과 승진에서까지 공정하게 보장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교육은 그간 세대 간 계층 이동의 통로 역할을 해왔다. 패자부활이 가능한 가교 역할이었다. 그러나 점차 '돈으로 성적 쌓기'와 같은 파행적인 교육 현실은 계층

상승의 유일한 수단인 교육 기회조차 박탈하면서 교육 불평등 문제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상위 계층이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수단으로 교육이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입학생이 수도권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듯 부의 대물림이 학력의 대물림을 낳고, 학력의 대물림이 다시 부의 대물림을 가져오면서 '개천의 용'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른바 명문대 합격생의 학부모가 대부분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 느끼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가 한다.

금수저나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은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다. 그렇기에 패자부활전에서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을 금수저나 은수저로 만들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라도 쉬지 않고 노력하면 계층 이동이 가능한 부활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가 진정한 경쟁 사회라는 말이다.

신자유주의 경쟁 논리를 앞세운 무한 경쟁 속에 사고 육 시장이 날로 커지면서 시험 하나로 인생이 결정되는 '승자독식'의 세상이 된 지 오래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나이의 많고 적음에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면서 패자와 승자가 끊임없이 경쟁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시험 공화국'이란 소모적 경쟁은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가을 수확기, 농촌 일손 돕기에 관심을

니 말을 다했다. 처음에는 하나둘 올라오는 고구마가 신기하고 재미있었으나 깊게 박힌 고구마와의 사투를 벌일 때에는 진땀을 꽤나 흘려야 했다. 그래도 밭 위에 수북이 쌓인 고구마들을 보니 가슴이 뿌듯해졌다. 뭔가 수확의 기쁨이랄까? 그렇다. 지금 우리 농촌은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에 접어들었다.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농촌은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봄 영농철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급 문제로 일손 부족에 시달렸고 농작물이 익어가는 여름철에는 마른장마와 함께 시작된 예기치 못한 폭우와 폭염 등 기상 이변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 9월 초순 1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강원 지역 농가에는 온갖 병해충이 창궐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직 배추를 재배하는 태백의 산간 밭에는 채소가 흐물흐물해지면서 썩는 '무름병'과 뿌리가 기형적으로 부푸는 '뿌리혹병' 등이 급속히 퍼졌다. 전북 전주의 대표적 과수 작목인 배도 병충해를 피해 가지 못했다. 올해 전주 지역 배 생산량은 평년 4035t에 못 미치는 3762t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당도도 10~11

브릭스(Brix)로 예년보다 10%가량 낮고, 과실 크기도 전반적으로 작은 상태. 여기에 일부 과실에는 엷은 흑색의 얼룩무늬가 생기는 흑색병이 번졌다.

그리고 가을 수확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필자가 몸담고 있는 농협에서는 농촌 일손돕기 행사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물론 4~5명씩 소집단으로 분산해서 작업을 실시하고, 점심 식사도 도시락으로 각자 해결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말이다.

요즘 코로나 장기화로 심리적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 일손 돕기'는 '코로나 블루' 극복에도 제격이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촌과 농민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물론, 가을 수확의 기쁨과 아울러 마음의 풍요로움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블루 극복은 덤이다. 올 가을, 물 맑고 공기 좋은 농촌 들녘에서 수확의 굵은 땀방울을 한번 흘려 보는 것은 어떤가.

社說

이번에야말로 재개발사업 비리 밝혀내야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 참사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경찰의 수사가 광주 지역 재개발 사업 단 조깅장을 고발했다. 임동 2구역에서도 4억 9000여 만 원의 유사한 계약이 체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정의당 등은 이들 두 곳 외에 13개 재개발 사업장에서 체결된 289억 원 규모의 지장물 철거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 재개발비리 공동대책위원회와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광주 시본부, 정의당 광주시당 등은 최근 월산 1구역 및 임동 2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학동 임종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재개발 비리 의혹은 용역 금액 불풀리기, 업체 선정 비리, 업무추진비 횡령, 지분 쪼개기, 서면 결의 조작 등 다양하다. 월산 1구역의 경우 지장물 철거 및 이설 공사비 3억 4000여 만 원을 업체 측에

이중으로 지급,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조깅장을 고발했다. 임동 2구역에서도 4억 9000여 만 원의 유사한 계약이 체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정의당 등은 이들 두 곳 외에 13개 재개발 사업장에서 체결된 289억 원 규모의 지장물 철거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조합 구성부터 업체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이 미흡한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맡겨져 사실상 방치됐다. 이로 인해 온갖 비리와 불·탈법이 난무하는 복마전으로 전락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컸다.

현재 학동 재개발구역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로 부실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경찰은 이번에는야말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구조적 비리를 밝혀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때아닌 주술 논쟁인가

국민의힘 경선 판이 정책 경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때아닌 주술 논란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손바닥에 '왕(王) 자를 쓰고 TV토론에 나온 사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손바닥에 '왕' 자 갖고 나오는 후보, 빨간 속옷만 입고 다닌다는 후보가 있다"며 야당 후보들을 찌짜아 비난했다. 여기서 '빨간 속옷'은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주술 의혹에 대해 반박하면서 한 말인데, 이는 빨간색을 좋아하는 홍준표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술은 오래전부터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동짓날 역귀를 물리치기 위해 팔죽을 집안에 뿌렸던 것도 그 중 하나다. 주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미 민속으로 정착된 주술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선거 때마다 역

술가를 찾았다는 얘기가 들려오곤 한다.

문제는 윤 후보 캠프 인사들의 석연치 않은 해명이다. 손바닥의 '왕' 자 시비가 일자 캠프 대변인은 "(5차 토론회) 전에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앞선 3·4차 토론회에서도 있었던 게 곧바로 확인됐다. 그러자 "동네 할머니들이 힘 받으라고 적어줬다"고 말을 바꿨다. 캠프 측은 또 손 세정제로 지우려 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실제 해 보고 얼마든지 지워진다는 반론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급기야 캠프 측 인사는 "(윤 후보가) 손가락 위주로 씌는 것 같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유력 후보가 주술을 믿든 종교를 믿든 다른 사람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거짓 해명은 치명적일 수 있다. 낙선 대통령도 도청이 문제였지만 결정적으로 탄핵을 당하게 된 원인은 거짓말이었다.

**無等鼓**

북악이 한참 지났는데 때 아닌 개고기 논쟁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라고 발언한 이후 개고기가 다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를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동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논의를 앞두고 나왔다. 정부는 앞으로 유기 반려동물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보면 개는 먹기 위해 키우는 동물이 아니어서 도축이나 유통할 법적 근거가

**개 식용 금지**

개는 음식의 원료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돼지나 닭처럼 가축으로 분류돼 있고 오랜 식문화 때문에 개고기가 식용으로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을 뿐이다. 동물보호단체가 식용 금지를 위해 개를 가축에서 빼달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개고기 논쟁을 지구촌 이슈로 부각시킨 것은 호주 선수 박지성이었다. 박지성은 지난 4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공식 팟캐스트에 출연해 자신을 위해 팬들이 지어준 '개고기 송'을 더 이상 부르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개고기 송은 맨유 팬들이 박지성을 응원하면서 라이벌 팀 리버풀을 조롱하기 위해 만든 노래다.

문제는 '박지성, 네가 어디에 있는 한국에선 개를 먹지. 하지만 집에서 쥐를 잡아 먹는 리버풀보다는 나야'라는 가사다. 2012년 박지성이 맨유를 떠난 뒤 맨유-리버풀전에도 종종 등장했던 이 노래는 지난 8월 30일 올버햄프턴전에서도 울려 퍼졌다. 맨유 팬들로서는 올버햄프턴 선수로 나선 황희찬을 보며 같은 한국 선수인 박지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불렀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지성은 "팬들은 알지만 한국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담겨 있고 인종적 모욕일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 드라마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차트를 장악하는 '한류 전성시대'에 개고기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국가 이미지나 동물 보호 차원에서 식용 금지를 논의할 때다. 다만 개고기 판매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개고기 송은 맨유 팬들이 박지성을 응원하면서 라이벌 팀 리버풀을 조롱하기 위해 만든 노래다.

문제는 '박지성, 네가 어디에 있는 한국에선 개를 먹지. 하지만 집에서 쥐를 잡아 먹는 리버풀보다는 나야'라는 가사다. 2012년 박지성이 맨유를 떠난 뒤 맨유-리버풀전에도 종종 등장했던 이 노래는 지난 8월 30일 올버햄프턴전에서도 울려 퍼졌다. 맨유 팬들로서는 올버햄프턴 선수로 나선 황희찬을 보며 같은 한국 선수인 박지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불렀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지성은 "팬들은 알지만 한국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담겨 있고 인종적 모욕일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 드라마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차트를 장악하는 '한류 전성시대'에 개고기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국가 이미지나 동물 보호 차원에서 식용 금지를 논의할 때다. 다만 개고기 판매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